

## 제 8 차 세계보건기구

### 합동조정이사국 회의에 다녀와서



會長 徐 丙 高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열대의학연구및 훈련특별 계획을 추진키 위한 제8차 합동조정이사회의 (Joint Coordinating Board Meeting/TDR)에 한국이 정식 이사국으로 되어있어 필자는 한국의 정식대표로서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초여름의 날씨가 본격적인 기승을 부리려는 6월24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필자는 펜웨이기편으로 동경을 거쳐 서독 루프트한자편으로 프랑크푸르트경유 약 19시간이라는 지루한 비행기 여정끝에 제네바에 도착한 것이 6월 25일 오후 1시경, 곧바로 꼬르나방 호텔에 여장을 풀고 피곤한 몸을 쉬었다.

열대의학연구계획(T·D·R) 프로그램에 의한 합동조정이사국회의란 세계보건기구 특별계획중에서 열대병관리를 위한 세계열대연구기관및 대학연구실에 위촉해야 될 질병연구및 개발도상국의 연구인력훈련을 위한것으로 이번회의 주 의제는 그간의 연구성과의 보고와 TDR계획추진을 위해 매2년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고 예산은 각 회원국및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및 UNDP의 증여금으로 이루어 진다.

이번 회의는 1986년부터 87년까지 2개년간에 걸친 예산을 책정하는 회의였다.

1974년 이래 추진되었던 이 WHO특별계획에 사용된 기부총액은 약1.6억불(미화)이었고 이중 미국이 2,000만, 덴마크 2,500만, 스웨덴 1,700만불 등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1984~1985년 예산은 6,600만불로 책정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실제수입된 증여총액이 훨씬 못미치고 있어 예산상의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금년에 토의된 1986~1987년 2년간의 예산은 55,745,000US\$이고 이중 약65%가 연구및 개발금으로 사용되며 약23%가 연구인력훈련으로 사용될 책정이나 모금의 난관은 점차 더욱 커 질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 열대병 연구계획은 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세아 및 남미등 개발도상국가들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열대병을 퇴치 관리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연구하는데 쓰여지고 주로 말라리아, 사상충, 주혈흡충, 리슈마니아, 나병, 아프리카수면병등 6개종목의 약제개발, 예방접종등 연구및 연구인력 훈련이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3년부터 85년까지 3개년동안 이사국으로되어 있어서 본인이 3차에 걸쳐 예산의 책정및 기금의 활용방안을 토의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연구기금에 출연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결정 등에만 참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출연금은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매년 10만불씩 약 30만불이었으나 민간단체인 笹川財団(日本船舶工業財団)이 1974~1984년까지 기증한 금액은 총 약390만불이었고, 특히 아프리카 나병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 회의에서도 50만불을 출연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정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이 사업을 돕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 기금을 배정받아 기초적인 연구개발활동의 과학기술이 발달하였고 연구및 인력훈련 시설이 잘된 미국, 영국등 구미각국이 맡아서하고 둘째,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하여 아프리카와 동남아세아 및 남미등 개발 도상국 기술인력을 뽑아 이들의 연구능력을 훈련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연구 성과에서 특히 말라리아 백신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이 미국 뉴욕대학 의학기술연구진의 유전공학을 이용한 특수항체단백질산출이 가능하게 되어 말라리아 백신 치료및 예방에 큰 성과를 비치게 하였다.

한편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박멸을 위한 세균이용법(*Bacillus thuringiensis*)은 더욱 실용성을 갖게하고 있다. 또 연구인력양성에 많은 진전을 보아 개발도상국 연구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거나 이들 국가내에서 정부연구기관및 대학 시설등에서의 연구능력을 보장하여 이 사업의 실제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소위 연구인력 개발부(R·S·G)가 괄목 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 기금으로 연구및 개발에 관여하는 세계의 학자는 약 1,000여명이고 이

들이 약제개발, 예방법 연구를 하고 있어 소위 연구개발부(S. W · G)를 이루고 있다.

한국등 회원국가가 금년 12월말로 이사국 임기가 만료로 규정에 따라 수혜국으로서 경합끝에 참가 28개국 투표결과 브라질이 결국 이사국으로 당선 86년부터 이회의에 참여케 되었다.

이번 회의의 낙수거리로는 기금 출원이 많은 나라들은 발언권도 강한 편이고 특히 미국등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학자도 많고 사실상 가장 많은 연구자가 관여하고 있다. 미국(USAID)은 출연금에 미리 연구분야를 지정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등에 강한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열띤 토론끝에 연구비 지출및 분야지정 연구비 출원문제는 상임이사회와 해당 국가를 포함한 임원회에서 재차 의결하기로 결말을 보았다.

세계보건기구(WHO)본부 이사국회의장(Executive Board Room)에서 28개 이사국과 41개 단체 옵저버로 참가한 이번 회의는 비록 지루한 비행끝에 참석 한 회의였지만 개발도상국들의 보건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범세관적 보건 문제를 다룬 회의였다고 생각되며 인류생활향상에 진일보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도 생각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부강한 나라가 되어 이런기구에 도 출연금을 두둑히 내고 열대병퇴치를 위한 세계적인 연구개발, 인력훈련에 적극참여하여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일에 멀지않아 크게 참여할 수 있기를 빌어 마지 않았다.

### 故事成語

惡腹既飽不察奴飢 (아복기포불찰노기)

:내 배가 부르면 아랫사람의 굶주림을 살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배가 부르니 남이 배고픈줄 모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여 남의 사정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도 곧잘 비유된다.

惡事傳千里 (악사전천리) : 나쁜 일은 천리까지 뻗어 간다는 뜻이다.

착한 일은 입에 잘 안오르지만 좋지 않은 일은 굳이 들추어 떠들어 대는 세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 인심은 잘된 일은 칭찬하지 않으려 하고 나쁜 일은 쉽게 또 곧 잘 전해진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一脈相通 (일맥상통) : 한줄기로 서로 통한다는 뜻이다.

생각하는 것이나 당하고 있는 처지나 그 상태등이 같아서 서로 통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곧잘 쓰인다.